

# 교육발전특구 전략마련 시동

### 군산시-교육지원청, 공모추진단 킷오프회의 개최... 군산형 교육모델 수립 기대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개발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1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공모추진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을 연계한 특화된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등 교육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에서 추진중인 마동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마동공원 사업추진 현장 점검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준공 전 주요시설 공사 확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지 중 마동공원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자인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지는 239,031㎡ 면적 중 71.9%인 17만1,856㎡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커뮤니티센터, 유아놀이터, 연못, 전통문화공간 등으로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부서가 전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녹색도시환경국에서 공원을 관리할 예정이라 소관 위원회에서 준공 전 미리 방문하여 효율적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각종 시설들이 조성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마동공원뿐만 아니라 민간특례공원으로 조성되는 4개의 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준공 후에도 공원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양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익산시는 용안생태공원을 국내 3번째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전 단계를 추진 중이며 또한 아가페정원 등 민간정원사업을 확대하고 원광대 식물원, 신흥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어울림정원, 민경강 수변공원 등 정원 또는 도시숲 사업이 이전과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규모 공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친수공간과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공정 선거 막바지 점검

### 군산시, 차질 없는 선거관리 준비 통한 공명선거 추진 · 투표율 제고

군산시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미 군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선거 지원 상황실을 열고, 지난 1월 전 직원 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관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8일 시청 대강당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전) 투표관리관 (사전) 투표 사무원 850여 명에 대해 투표사무 관리 요령 및 사전

· 사고 예방 등 사전교육을 군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했다. 군산시는 향후에도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이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 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3월 20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군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 동안 거소 · 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신고를 받고, 29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해당 기간 내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 홈페이지 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4월 5일 ~ 4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 의무교육

익산시가 로컬푸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기획생산 등 의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660여 명, 가공품 생산자 90여 명 등 총 7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5~28일, 다음달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의무 교육은 농산물 생산 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인식제고 △농산물 품질향상 △농약 안전사용 기준(PIS)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한 △상품 포장·진열 △농가 준수 및 제재사항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 방향 등 출하 농가가 갖춰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농산물 흥수출하 방지 및 소량 다품목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교육뿐만 아니라 직매장 운영 및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도 힘



출 예정이다. 직매장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품목별 진열 기간과 농가 제재 사항을 통일하고 모니태링단을 운영해 직매장 관리 상태 및 농산물 품질·포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점검한다.

## 허전 익산시 부시장, 식품기업 현장 소통행정 펼쳐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식품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행정을 펼쳤다.

시는 21일 허전 부시장이 (주)선해수산과 세브브로이이즈(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전 부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경기침체에 따른 식품기업들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선해수산은 명태 어육을 활용한

고단백 영양 건강 스낵 전문 기업으로 2022년 익산에 제2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강소기업이다.

세브브로이이즈(주)는 국내 1세대 수제맥주 대표기업으로 2022년 익산에 공장을 짓고 운영 중이며, 하이볼 대표맥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허전 부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